
지구 행성에서 너와 내가

작성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이성균(시흥 함현고등학교 교사)
성지현(김포교육지원청 장학사)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교사)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1318문고 123
김민경 장편소설

■ 주 제 어 #기억 #상전이 #상처 #친구 #죽음 #세월호 참사 #모비_딕

■ 분 류 문학>한국문학>청소년소설

도서 소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 엄마의 장례식을 치른 새봄이는 우울증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방에서 홀로 상처를 견뎌 낸다. 4년 만에 다시 찾은 학교에서 새봄이는 세월호 참사처럼 우리 사회를 바꿔 놓은 사건을 ‘상(相)전이’로 볼 수 있는데 전이 이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인식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에 큰 용기를 얻는다. 기억하고 기억하다 보면 진실을 찾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의 상처와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남겨진 자들의 예의를 생각하게 된다. 견디기 힘들 때 운동장을 달리는 새봄이 옆에 어느 날 지식이는 말없이 함께 달려 주고 몰래 신발을 가져다 놓는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던 새봄이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왔던 지식이는 책 한 권을 통해 우주를 공유하고 지구 행성에서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의미 있는, ‘마음의 밀월’을 나누는 친구가 된다.

새봄이는 지식이에게 『모비 딕』을 선물하면서 자기가 이사 가기 전 지식이가 책을 다 읽으면 만나자고 한다. 지식이는 두꺼운 양장본 책을 받아 들고 새봄이와 만나기 위해 책과 씨름한다. 지식이는 새봄이가 왜 하필이면 바다와 배와 죽음의 책을 추천했는지를 생각해 본다. 새봄이는 남들은 한 번도 읽기 어렵고 두꺼운 『모비 딕』을 두 번이나 읽은 후 4년 전 엄마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도서관 앞을 찾아 간다. 책이 준 용기라 생각하며.

나는…… 『모비 딕』을 읽고 나서 살고 싶어졌다. 지구에서의 삶이 주는 모든 황홀과 경이, 그리고 심지어 처절한 고통마저도 ‘의식하면서’ 다시 느껴 보고 싶다. 이슈메일이 순전한 마음과 정신 속에서 항해를 하며 모든 걸 받아들이고 느꼈듯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내 모든 감각을 열어 놓고 모든 자연과 사람과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대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이다. 죽음, 엄마의 죽음. 나는, 죽음을 극복하고 싶다. 아…… 죽음이라기보다,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다.(136쪽)

지식이가 『모비 딕』을 읽어 가는 과정과 새봄이와 지식이가 책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으로 전개되는 이 책은 우리 삶에서 책읽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일깨워 준다.

학습 목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용기는 그 상처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다양한 독서활동과 토론활동을 통해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고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또한 책읽기의 행위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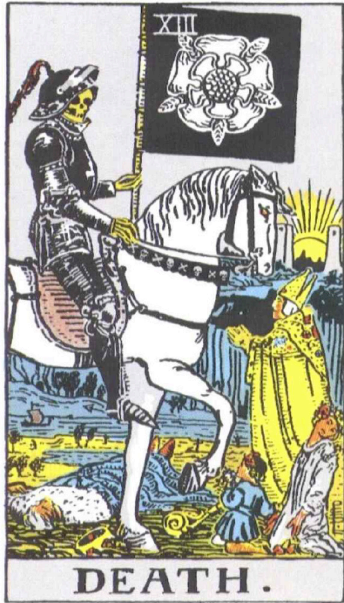
독서 계획

| 단계 | 활동 내용 | 총 10차시 |
|-------|-----------------------------------|--------|
| 독서 준비 | ‘죽음’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 | 1차시 |
| 독서 | 『모비 딕』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 2차시 |
| | 세월호 참사와 상전이(相轉移) 사건 내면화 하기 | 3차시 |
| | 추모의 방식과 경험 나누기 | 4차시 |
| | ‘기억의 힘’내 삶에 적용하는 글쓰기 | 5차시 |
| | ‘소설 『모비 딕』을 읽기’와 ‘달리기’행위의 의미 분석하기 | 6차시 |
| | 소재의 상징적 의미와 인물 특성 파악하기 | 7차시 |
| 독서 후 | 내 인생의 책-기억 속에 남은 책에 대하여 | 8차시 |
| | ‘책’이라는 선물 | 9차시 |
| | ‘마음의 밀월’을 나눈다는 것-우린 통했어! | 10차시 |

1차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

1. 아래 그림은 일명 ‘타로 카드’라 불리는 것으로, 두 장 모두 그 중에서도 죽음을 상징하는 카드들입니다. 마음에 드는 카드를 하나 고른 다음, 질문을 만들어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카드의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



〈유니버설 웨이트 13번 카드〉



〈마르세이유 13번 카드〉

| 내가 선택한 카드 | | |
|-------------------------|--------|--|
| 나의 질문 | 친구의 답변 | |
| 이 카드의 분위기는 어때? | | |
| 낫을 들고 나타난 해골은 무엇을 상징할까? | | |
| | | |
| | | |
| | | |
| | | |

2. 타로 카드는 13세기부터 유럽에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래를 점치는 도구이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다음의 글은 타로 카드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13번 카드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마르세이유 13번 카드는 서슬 퍼런 긴 낫을 든 해골이 팔을 휘저어 사람들의 목을 치고 있는 듯한 섬뜩한 형상이다. 하지만 해골의 머리는 얼굴 가득 웃음기를 띠고 있다. 익살맞은 표정은 어딘지 부조리해 보인다. 죽음의 사자라면 진지한 표정이나 무시무시한 얼굴을 해야 하지 않은가. 해골의 발아래 황금빛 들판이 펼쳐져 있다. 누가 봐도 곡식이 무르익어 일렁거리는 들판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들판 군데군데 도움을 요청하는 듯 사람들의 손이 다급해 보인다. 카드의 하단 양쪽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해골의 모습에 유독 선명하게 강조된 것은 푸른색 등뼈다. 그리고 등뼈와 엉덩이뼈가 연결되는 지점에 빨간색 덩어리가 눈길을 끈다. 이 해골의 모습은 마치 단전(丹田)만 살아 숨 쉬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육탈(肉脫)되어 사라진 듯한 형상이다. 해골의 등뼈에 붙은 빨간색 덩어리는 에너지를 상징한다. 죽음을 나타내는 이 카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카드가 아니다. 거꾸로 매달린 사내 카드에서 죽음이 재생을 약속하는 하나의 표지임을 읽었듯이 이 죽음 아카나의 의미 역시 그러한 맥락을 지닌다.

죽음이란 것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앗아 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면에서 그럴 뿐이다. 정신의 유산은 오래 남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위인들의 육체는 땅속을 꺼져 흙이 되고 먼지가 되었을지언정 그들의 생각과 말, 그들의 정신은 인류의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한다면 죽음은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영화를 알 것이다. 시시각각 기억을 상실하는 사내가 온몸에 하나씩 문신을 새기고, 그 문신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을 추적해 복수를 한다는 내용의 영화. 이 영화의 제목으로 쓰인 ‘메멘토 모리’는 사실 죽음을 주제로 한 중세 회화에 오래 쓰이던 명구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의 라틴어다. 중세 사람들은 숭한 죽음을 겪었다. 굶주림과 가난, 또 흑사병으로 대표되는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들에게 죽음은 일상적이었고 심지어 친숙하기까지 했다. 중세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 가지 교훈을 일깨웠다. 하나는 죽음은 누구도 피해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다. 죽음의 공평성과 죽음의 돌발성은 인생을 돌이키게 한다.

이 죽음 카드의 해골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삶을 보살피라는 의미다. 서슬 퍼런 낫을 들어 잘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듯이 열심히 일한 뒤에 결과를 기대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앙상한 해골의 상징이 주는 교훈이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카드에 이런 교훈이 들어 있다. 죽음 카드는 결실, 추수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감춘 채 오싹한 형상으로 낫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겉만 보면 섬뜩하고 오싹한 형상이지만 보기와 달리 숨겨진 상징은 희망적이다. 이 죽음의 카드는 묘한 카타

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격변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인생역전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남을 뜻하기도 한다. 환골탈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해방감이기 이전에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정통 타로 카드 배우기』 중에서
(2009. 12. 25. 정홍경, 정연의)

1)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타로 카드라는 상징을 사용하여 ‘죽음’으로부터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죽음’이 재생과 변화를 의미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와 대화를 해 봅시다.

3. 소설 속 두 주인공은 고인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166~168쪽). 인류는 왜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했을까요? 고인돌의 의미를 찾아보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사건을 정리하고 이를 기념하는 고인돌을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강화 부근리 고인돌〉

| 내가 기억하고 싶은 사건 | 나의 고인돌 그리기 |
|---------------|------------|
| | |
| | |
| | |
| | |
| | |
| | |

1. 다음 글을 읽고, 소설에 나온 『모비 딕』 구절인 (가)~(라)의 의미를 밑줄 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어떤 뜻인지 말해 봅시다.

대한민국 산악인 중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홍길 대장을 거론할 것이다. 그는 1988년 에베레스트 등정 이후, 2001년에 한국에서 두 번째이자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히말라야 8,000미터급 14개 봉우리를 완등한 산악인이다.

다음은 엄홍길 대장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산을 오를 때에 산이 잠시 정상을 빌려주는 것일 뿐, 산을 정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산악인이라도 산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정상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000미터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을 오를 때, 자연스레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자세로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의 발언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엄홍길 대장은 산에 오를 때마다 유서(遺書)를 작성했다고 한다. 산에 오르면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긴 경험도 있지만, 후배 산악인과 세르파 등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안나푸르나 등정 과정에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이후에는 사회에 모든 것을 베풀며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현재 엄홍길 재단을 설립하여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에 학교를 짓는 등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가)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기묘하고도 복잡한 사태에는 우주 전체가 어마어마한 장난이나 농담으로 여겨지는 야릇한 순간이 있다. (66, 97쪽)

(나) …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진보한다 해도, 바다는 최후의 심판일까지 영원히 인간을 모욕하고 살해하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당당하고 견고한 군함도 산산조각으로 부숴 버릴 것이다. 그런데도 … 인간은 바다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그 최대한의 무서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67쪽)

(다) 인간은 누구나 포경 밧줄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모든 인간은 목에 밧줄을 두른 채 태어났다. 하지만 인간들이 조용하고 포착하기 힘들지만 늘 존재하는 삶의 위험들을 깨닫는 것은 삶이 갑자기 죽음으로 급선회할 때뿐이다. (76쪽)

(라) 진정한 힘은 결코 아름다움이나 조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움과 조화를 가져다준다. 당당한 아름다움을 지닌 모든 것이 발휘하는 불가사의한 매력은 힘과 깊은 관계가 있다. (134쪽)

| | |
|-----|--|
| (가) | |
| (나) | |
| (다) | |
| (라) | |

3차시

세월호 참사와 상전이(相轉移) 사건 내면화 하기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봅시다.

상전이(相轉移), phase transition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체가 온도에 따라 액체나 고체로 변하는 거 알지? 그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특성이 생겨나잖아. 이걸 ‘상’(相)이 바뀌었다, ‘상전이’라고 하는 거야. 잘 들어. 이걸 인간의 역사에 적용해 보면 전쟁을 상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 가까이 우리 역사에서 보면 6·25 한국전쟁이 우리 역사의 상전이였고,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전쟁이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생긴 상전이라 할 수 있어. 자, 그럼,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보면 될까? ㉠나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의 상전이라고 생각해. 상전이가 생기기 전과 후는 달라. 그만큼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 한쪽에서는 그만하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상전이가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어. ㉢세월호는 아마 계속해서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과도칠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애써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뿐.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면 될까? 상전이의 변화를 인식하고 방향을 잘 이끌어 가면 돼. ㉣그러려면 기억해야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94~95쪽)

1. 소설 속 등장인물에게 상전이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 새봄에게 상전이 된 사건은 _____ 이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전에 새봄의 삶은 _____ ,
사건 이후에는 _____ 변했기 때문이다.

▶ 지식에게 상전이 된 사건은 _____ 이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전에 지식의 삶은 _____ ,
사건 이후에는 _____ 변했기 때문이다.

2. 여러분에게 상전리로 불릴 만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 나의 삶에 있어서 상전리가 될 만한 사건은 _____ 이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전에 나의 삶은 _____ ,
사건 이후에는 _____ 변했기 때문이다.

3. 다음의 사건을 조사하여 표의 내용을 채워 봅시다.

| 무슨 사건인가요? |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 성수대교 붕괴 사고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
| 언제 발생했나요? | | | | |
|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나요? | | | | |
|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 | | |
| 상전이로 불릴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나요? | | | | |
| 여러분이 직·간접 적으로 접했던 사건인가요? | | | | |
|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변화했다 고 생각하나요? | | | | |

4. 여러분은 ㉠~㉡에 해당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얼마나 동의하나요? 동의하는 정도를 별점으로 표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 선생님 말씀 | 동의하는 정도 |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사회에는 이미 3번에서 조사했던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반복하여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소설 속의 추모 장면들을 같이 살펴봅시다.

(가) 어제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달리는 대신 몇몇 아이들과 같이 리본을 만들었다. 반 아이 한 명이 고리를 단 노란 리본을 한 움큼 가져와서 나눠 주었다. 나는 가방에 하나 달고 아빠에게도 하나 주려고 필통에 넣었다. 아이들은 아이돌 그룹 얘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 복도를 걸어가다가 방귀 편 얘기도 했다. 풀을 문힌 곳을 손가락으로 잠깐씩 누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고 장례식 끝난 다음 날 텔레비전 화면으로 봤던 그 배가 떠올랐다. 하지만 아이들과 같이 웃고 이야기하면서 추모 리본을 만드니 그 기억이 마냥 무겁게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운이 나서 리본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다. (93쪽)

(나) 나는 리본 네 개를 꺼내서 풀을 바르고 배 그림에 두 개, 리본 그림에 두 개를 붙였다. 다른 아이들도 몇 개씩 리본을 붙였다. 오래 걸리지 않아 커다랗고 노란 배와 리본이 완성되었다. (중략) 선생님은 과학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완성한 노란 배와 리본 그림을 교실 뒤 벽에 붙였다. (94쪽, 97쪽)

(다) 이미 어떤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세월호 기억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었다. 영상 두 개가 끝나고 다음 순서로 4·16 4주기 아트 프로젝트 그룹 '리본'(Reborn)의 <네버 에버>라는 공연이 이어졌다. 기타와 북, 심벌즈 소리가 들려서 음악 연주인 줄 알았는데, 잠시 후 책가방을 멘 여고생이 무대에 등장해서 "배가 사고 났어. 배 위에서 컨테이너가 막 다 떨어지고 한 60도 정도 기운 것 같아. 나 수영 못하는데 어떡하지?"라고 말했다. (101쪽)

(라) 납골당 유리장 속 엄마의 사진들을 물끄러미 보았다. 엄마의 학창시절과 결혼 전 사진에 이어 마지막 사진은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가족 사진이다. 웬지 엄마 얼굴이 낯설었다. 엄마가 저렇게 예뻐나……. 기억 속에서 엄마의 얼굴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불과 4년인데……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113쪽)

1. (가), (나), (다)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장면이고 (라)는 엄마의 유골함이 있는 납골당을 방문한 장면입니다. 우선 (다)에 소개되고 있는 4·16 4주기 아트 프로젝트 그룹 '리본'의 <네버 에버> 공연 영상을 같이 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90NKy9Uijk>

2. 추모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한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 봅시다.

3.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친척 어른이나 가까운 분이 돌아가신 일이 있나요? 이분들을 추모했던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 봅시다. 직접 겪지는 않았더라도 영화나 책, 혹은 다른 사람들이 겪은 경험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선생님께

선생님께서 겪었던 경험들을 먼저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도 좋겠습니다.

1. 소설에는 죽음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 봅시다.

그때 한 여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하면 뭐 해요? 만약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도 다 구조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변한 게 없는데.”

선생님이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비슷한 상황을 맞았을 때, 누군가 오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 이런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거야.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사회가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겠지, 이런 최소한의 믿음 말이야. 어른으로서 ‘최소한’이라는 말을 써서 참 부끄럽지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삶을 제대로 꾸릴 수가 있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나 선생님의 이야기에 공감했을 것이다. (95~96쪽)

1)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소설에도 새봄이와 아빠가 추모 공연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 시간에 함께 본 추모 공연 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2) 아래 제시 글에서 말하고 있는 ‘기억의 힘(174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사례를 들고, 기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봅시다.

죽음을 기억하는 게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 같아. 그 기억의 힘이 흔들리지 않게, 뚝뚝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174쪽)

| | |
|-------------------|--|
| 사례 | |
| 선정 이유 | |
| 기억을 위한 다양한 제도나 방안 | |

6차시

‘소설 『모비 딕』을 읽기’와 ‘달리기’ 행위의 의미 분석하기

1. 11장~14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지석 | | 새봄 | |
|-----|---|-----|--|
| 11장 | 지석은 『모비 딕』 읽기를 마친 후 _____에 대한 충격으로 _____한다. | 12장 | 새봄은 『모비 딕』 읽기를 마친 후 엄마와의 추억이 깃든 _____에 갈 용기를 내고 _____ _____겠다고 생각한다. |
| 13장 | 지석은 『모비 딕』을 읽고 뭔가 달라진 자신을 느끼며 새봄을 만나 _____ _____다. | 14장 | 새봄은 지석과 함께 고인돌에 가서 _____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_____ _____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

소설 『모비 딕』과 고인돌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석과 새봄에게는 오히려

_____다.

1. 각 소재의 의미나 역할을 정리해 봅시다.

| 소재 | 의미나 역할 |
|----------------|--------------------------------|
| 고인들(168쪽) | |
| 을왕리 바닷가(179쪽~) | 바다의 원초적 힘과 자연의 무한함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 |
| 달(198~199쪽) | |
| 태양(240~241쪽) | |

2. '새봄'과 '지식' 중 한 명을 선택하여 해당 인물의 심리나 행동에 대한 5WHY 질문 활동을 해 봅시다.

1. 모둠 구성: 5명으로 한 모둠을 구성함.
2. 개별 활동: 개별 학생은 인물을 선정한 후 1WHY에 인물에 대한 질문을 적는다.
3. 모둠 활동: 모둠 학생의 활동지(1WHY 질문이 적힌)를 모둠 내에서 오른쪽으로 돌린 후 1WHY에 대한 답을 적는다. 그리고 자신이 답한 내용에 대해 2WHY에 '왜'가 포함된 질문을 1개 더 만든다.
4. 모둠 활동: 3.과 같은 활동을 5WHY까지 진행한다.
5. 정리 활동: 5회의 활동이 끝나면 모둠 내에서 결과를 공유하고 추가 의문을 나눈다.

| 해당 인물 | | |
|-------|----|---|
| 1WHY | 질문 | |
| | 답 | ↓ |
| 2WHY | 질문 | |
| | 답 | ↓ |
| 3WHY | 질문 | |
| | 답 | ↓ |
| 4WHY | 질문 | |
| | 답 | ↓ |
| 5WHY | 질문 | |
| | 답 | ↓ |

이 소설에는 주인공들이 각자 혹은 함께 읽은 여러 책들이 소개됩니다. 그중에서 『모비 딕』은 새봄이에게는 구원의 책이고 지석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 준 책입니다. 동시에 두 주인공을 연결하는 매개체이기도 하지요. 아래 글은 두 주인공이 『모비 딕』을 다 읽은 뒤의 장면입니다.

(가) 오늘 『모비 딕』을 다 읽었다.

『모비 딕』은 강력한 책이다. 불길을 머금은 채 곧 타오르기 직전의 책이다.

지난주에 대출 기한을 연장했다. 두 번째는 엄마의 『모비 딕』으로 한 번 더 읽기 시작했다.

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온 두 가지 벗이 생겼다. (중략)

또 다른 벗은 『모비 딕』이다. 두 번째 읽는 거라서 지루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빨리 책장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쓰며 읽고 있다. 늘 내 방 책상 위에 있는 『모비 딕』. 언제나 펼칠 수 있고, 그럴 때 마다 경이롭고 아름답고 때론 처절하고 쓸쓸한 지구에서의 삶을 보여 준다. 허먼 멜빌에게 감사와 존경을!!!

(118~19쪽)

(나) 나는 눈에 보이는 길로 그냥 내달렸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 하나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마구 솟구쳐 올랐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모비 딕, 이슈메일, 퀴퀘그, 스타벅, 피쿼드호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에이해브, 그리고 『모비 딕』의 세상을 알게 해 준 이새봄…….

나는 모든 이름들을 잊고 싶었다. 아니다, 옛세 동안 내가 오르락내리락한 천당과 지옥을 날날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싶었다. 아니다, 모비 딕을 모르던 옛세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다, 『모비 딕』을 읽기 전과 후가 분명 다르지 않은가. 나는 『모비 딕』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소화해 내고 싶다. (129~30쪽)

1. 지금까지 읽은 책 중 기억에 남는 책과 그 이유를 써 보고 같이 얘기해 봅시다.

| 제목 | 이유 |
|----|----|
| | |
| | |

선생님께

선생님께서 학창시절에 혹은 성인이 되어 읽은 책 중 기억에 남는 책을 먼저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소설에서 두 주인공은 마지막 만남에서 책을 주고받습니다. 지식이는 바닷가 작은 도서관에서 함께 읽은 소설책과 그림책을, 새봄이는 서점에서 함께 읽는 책을 선물합니다.

(가) 지식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나에게 내밀었다.

“어떤 책을 고를까 내내 고민했어.”

나는 봉투에서 책을 꺼냈다. 한 권은 『바다, 소녀 혹은 키스』였고, 다른 한 권은 『살아 있어』라는 그림책이었다.

“이 책, 다른 단편들도 읽어 보고 싶었어. 잘 읽을게, 고마워.”

『바다, 소녀 혹은 키스』의 표지를 넘기니 지식이가 써 놓은 메모가 있었다. 집에 가서 혼자 읽고 싶어서 그냥 덮었다.

(229쪽)

(나) 나도 가방에서 지식이에게 줄 책을 꺼냈다. 바로 올리버 색스의 『고맙습니다』였다. 나는 이번에도 책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지 않았다.

“이건 내 선물.”

내 말에 지식이가 “이번엔 얹아서 좋다.” 하며 웃었다. (232쪽)

1.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책 중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책이 있나요? 제목과 그 이유를 써 봅시다.

| 제목 | 누가 선물해 주었나요? | 기억에 남는 이유 |
|----|--------------|-----------|
| | | |

2. 책을 선물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한다면 어떤 책을 주고 싶나요?

| | 제목 | 이유 |
|-------|----|----|
| 친구에게 | | |
| 부모님에게 | | |
| 선생님에게 | | |
| ○○○에게 | | |

『모비 딕』에는 ‘마음의 밀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밀월’(蜜月)은 ‘꿀같이 달콤한 달’이라는 뜻으로 ‘결혼 직후의 즐겁고 달콤한 시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친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래글을 같이 읽어 봅시다. (가)는 『모비 딕』 속 인물인 이슈메일과 퀴퀘그가 ‘마음의 밀월’을 나누는 장면을 지석이 읽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와 (다)는 모두 지석이의 서술 부분입니다.

(가) 그날 밤, 이슈메일과 퀴퀘그는 자석처럼 마음이 통한다. 퀴퀘그는 자기 이마를 이슈메일 이마에 비비며 허리를 끌어안고는, 이제부터 우리는 결혼한 사이라고 말한다. 퀴퀘그의 고향에서는 이 말이 진정한 친구라는 뜻이고 필요하다면 친구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퀴퀘그는 이슈메일에게 두개골을 선물하고, 이슈메일이 극구 사양하는데도 자신의 은화 30달러 중 절반을 이슈메일의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마음의 밀월을 나누다. (22~23쪽)

(나) 고백하건대,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하고도 마음의 밀월을 나눠 본 적이 없다. 한집에서 16년을 산 부모님과도, 11년을 산 여동생과는 더더욱, 초등학교부터 작년 중학생 때까지 만난 그 수많은 선생님과 아이들 중에서도 마음을 나눠 본 사람이 없다. 안 지 4개월 남짓한 새봄이하고도 마찬가지다. 나도…… 마음의 밀월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24쪽)

(다) 지금도 새봄이의 그 말을 곱씹고 있다. 암, 지구상에 달이 안 보이는 곳은 없지.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어제도, 그저께도 고백 비스무리한 말을 들었지만, 오늘은 확실하다. 이새봄도 나를 좋아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나도 이새봄을 좋아한다, 아주 많이 많이. 우리는 사흘째 ‘마음의 밀월’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199쪽)

1. 소설에서 지석이와 새봄이는 마음의 밀월을 나누며 가까워지고 한층 성장해 나갑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건 아주 특별한 느낌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통해서 친해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한순간 훌쩍 빠져서 마음에 꽂혔던 책이나 영화, 노래 등을 적어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적은 다음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며 특별하고 행복했던 그 시간을 공유해 봅시다.

2. 9차시 원탁 회의 활동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서를 다음의 양식에 맞춰 작성해 봅시다.

| | | |
|---------------------|-------|--|
| 제안하는 정책명 | |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 |
| | | |
| 세부 내용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 | | |
| | | |
| 정책 추진 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 | 기대 효과 | |
| | | |